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영성이란 성경을 믿는 것    성경: 요한복음 5장 41-47절

Tag:

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5:31-47)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하셨다.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18:15)

영성이란 성경을 읽고 믿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으나 믿지 않았다. 자기 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을 놓쳤다. 핵심을 놓쳤다.

왜 우리는 영성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가?

영성이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종교적 주제이기 때문이다.

영성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종교마다, 심지어 사람마다 다 각각이

다. 물론 공통점은 있으나,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면 차이가 크다. 그 정도로 영성이란 광범위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며, 또 오류도 많다.

그런데 설교란, 그 복잡한 것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합리적이고 친근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연 다크를 보면서 생물들이 때가 되면 저절로 뭔가를 하는데, 전혀 배우지 않은 것들을 척척 잘 해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알-애벌레-번데기(다시금 알로 돌아감)-나비) 그렇게 진화 되었다고 쉽게 말하곤 하는데, 차라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며칠전에는 잠자리 이야기를 보는데, 잠자리는 날개가 4개인데 4개 모두 각각 움직인다고 한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있다. 단연 모든 생물들 중 비행능력은 가장 우수하다고 한다. 사냥성공율도 95%로 1등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잠자리는 비행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때가 되면 그냥 날아다닌다. 모두 훌륭한 비행술을 과시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조그마한 몸집에 온 인류가 달려들어 도 배울 수 없는 기술과 정교함을 지니고 있다. 잠자리는 자기가 세계 최고의 비행술을 장착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어간다. 스스로는 신기해 하지도 않는 것 같다.

반면 PT는 근육 하나 사용하는데도 정밀한 코칭을 받아야만 한다.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존재는 사람이다. 사람에게에는 잠자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은 없다. 물론 사람 중에 아무도 잠자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재능은 영적인 재능이다.

이 영적인 재능은 전혀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문제는 일

단 사람의 영적 재능은 제멋대로이다. 잠자리 날개처럼 일률적이지 않다.

오랜 세월 동안의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책으로 귀결 되었는데, (영성의 핵심도 성경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이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정적이다. 왜냐면 읽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성경책이 누구든 막론하고, 제대로 읽고 믿기만 한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인류는 변할 것이다. 잠자리 날개짓 같이 일률적인 재능을 발휘하게 되지는 못할지언정, 세계는 큰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성경책 이외의 타종교 경전들은 결코 성경책처럼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일단, 세계적인 보급조차 되지 않았다. 보급률만큼은 성경책이 유일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2등과의 격차는 조금 과장해서 하늘과 땅 차이이다. 왜 그럴까? 일단 번역 자체가 어렵다. 불교는 주문이 되어 버렸고, 이슬람과 천주교는 아예 자신들의 경전을 오래도록 사제들만 읽도록 하였다. (카톨릭은 1963년 이후까지 번역도 하지 않음)

최근에 코란도 한국어로 번역해 놓았지만, 문제는 원문과 많이 다르다. 순화 되었고 수정되었다. 왜냐면 원문은 오류 투성이기 때문이다. 천주교가 성경 번역을 극도로 꺼렸던 이유도 교황에 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거짓말로 교인들에게 가르침)

오직 개신교만 번역과 보급에 큰 공을 세움. (사실적시 명예 회손)

어린이에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이가 자란 다음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생물들의 본능과 같이,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본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

록 지음 받았다.

인간 특징 가운데(영성 포함) 중요한 핵심 특징은 배움에 있다. 인간만은 DNA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DNA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완벽하지 않다.

근육은 고릴라가 더 완벽하고, 달리기는 치타가 낫고, 힘은 코끼리가 제일이고, 시력은 독수리가 왕, 민첩성은 고양이보다 더 낫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배운다. 배우고 익히고 연단한다.(물론 DNA도 배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DNA가 좋다고 배우지 않으면 그 특성의 역할은 미미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구실을 못한다. 인간이라면 하여튼 뭘 하든 배우고 익히고 연단해야 한다. 결코 DNA만으로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인간 사회는 DNA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짐승이란 소리를 듣거나, 감옥에 간다.

그래서 성경이 필수교재이다.

하지만 이 배움 또한 매우 변화가 심하다. 시대마다 배움은 지식이 쌓여갈 뿐만 아니라, 압축되기도 하고, 폐기 되기도 하고, 진보를 이룬다. 그래서 옛날식으로는 어리석을 뿐이고, 새롭게 연구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가르쳐야 한다.

그나마 성경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교재로도 훌륭하고, 전문교재로도 훌륭하다.

제대로 된 인간이면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성경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효과적인 교재이다. 왜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란 성경을 읽고 믿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성경을 읽을 때 믿도록 지음 받았다.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곧 본능적 영성이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받아

들이기 쉽고, 순종하기 쉽게 되어있다.)

다만 마귀가 거짓말을 사용한다. 성경을 믿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다른 가치관으로 기준이 되는 잣대를 변경시킨다. 버젓한 성 정체성을 무시하고 이상한 성 정체성을 가르친다. 어린이들이 해갈릴 수 밖에 없다.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반항을 가르친다. 공산주의는 모든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면서 오로지 공산당만 제일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공산주의가 마귀적인 이유는 오로지 성경과 교회만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개신교에도 수많은 영성에 관한 주제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영적이고, 가장 본능적인 영성은 오직 성경을 읽고 믿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않된다.

성경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사건이고, 읽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뛰어나신 분들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깨달음을 기록하고, 결단까지 하고, 기도도 하는 - QT라는 것을 하는데, 나는 그런 고차원적인 것 보다는 그냥 성경을 읽고 믿고 이해하고, 또 읽고 믿고 이해하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성경의 숲길을 걷는 것이 제일이라 생각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면된다.

그러다 보면 행간의 생략된 부분도 짐작이 되고, 성경을 기록한 자의 마음도 느껴지며, 더 뜨거운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곧 성경의 영성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더 활발하고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책의 저자이신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경의 영성 속에 깊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